

중앙아시아 물류 수출 새 길을 열었다. 철송·해운 연계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 완료

- 카자흐, 우즈베크로 자동차부품·전자제품 실은 55칸 컨테이너 화물열차 수송 -

□ 정부가 철송·해운 연계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며,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의 새 길을 열었다.

○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와 한국철도공사(사장 한문희, 이하 코레일)는 12월 10일 의왕 오봉역에서 적재한 컨테이너 화물이 부산항까지 철도, 중국 연운항까지 해운으로 수송된 후, 다시 철송으로 총 6,044km를 이동해, 출발 19일 만인 12월 29일 카자흐스탄에 도착했다고 밝혔다.

○ 이번 시범사업은 한국-중앙아시아 간 철도물류 활성화를 목표로, 철송과 해운을 결합한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6월 1차 시범사업* 시행 이후 10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차례, 총 4차례 시행되었다.

* 1차 시범사업 : 오봉역^{철송} → 부산항^{해송} → 중국 연운항^{철송} → 카자흐스탄^{철송} → 우즈베키스탄^{철송} → 타지키스탄 (7,123km), 32일

□ 이번에 시행된 2~4차의 추가 시범사업*은 중앙아시아로 수출되는 자동차 부품, 전자제품 등 40ft 컨테이너 50개 이상의 물량을 카자흐스탄 알마티,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까지 운송하는 사업으로, 지난 6월~7월에 추진한 1차 시범사업의 성과를 확대하고, 미비점은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었다.

* 2차/4차 시범사업 : 오봉역^{철송} → 부산항^{해송} → 중국 연운항^{철송} → 카자흐스탄 (6,044km), 19일
3차 시범사업 : 오봉역^{철송} → 부산항^{해송} → 중국 연운항^{철송} → 우즈베키스탄 (7,010km), 22일

○ 지난해 6~7월 시행한 1차 시범사업에서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중앙아시아를 가로지르는 횡단철도망인 TCR(Trans China Railway)의

시발점 중국 연운항에서 카자흐스탄, 우즈베키스탄, 타지키스탄에 이르는 7,123km에 걸쳐 총 55칸 규모 화물열차를 운행했다.

- 1차 시범사업에서 중국, 카자흐스탄, 우즈베키스탄과 협력을 통해 항구에서 화물열차를 배정받는 데 장기간 대기하거나 화물이 운송되는 모든 나라와 운송 계약을 각각 체결해야 하는 문제는 해소되었으나, 여러 나라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, 국경 역에서의 추가 환적시간 소요 등 개선점도 도출됐다.

□ 이에,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2~4차의 추가 시범사업에서 단일국가(카자흐스탄/우즈베키스탄)로 보내는 물량만으로 전용 화물열차를 편성했다.

- 이를 통해 중국-카자흐스탄, 카자흐스탄-우즈베키스탄 국경역에서 환적 시간을 최소화하고 통관 등 행정절차를 개선해 운송기간을 8일 이상 단축*하고, 지체 기간에 발생하는 화물 보관료 등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.

* 1차 시범사업의 오봉역~카자흐스탄 간 운송기간(28일)보다 9일 단축, 오봉역~우즈베키스탄 간 운송기간(30일)보다 8일 단축

-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 물류업계 관계자는 “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을 통해 중국 항만에서의 장기간 적체가 해소되고, 운송기간이 단축되면서 중앙아시아 수출물동량 운송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향상되었다”라고 언급했다.

□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“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 기업이 중앙아시아로 안정적으로 수출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”면서,

- “우리 기업이 국제복합운송을 통해 화물을 원활하게 운송하여 운송기간을 단축할 뿐만 아니라, 물류비도 절감할 수 있도록 정기열차 운행, 업무절차의 표준화 등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”고 말했다.

담당 부서 <총괄>	철도국 철도정책과	책임자	과 장	우정훈 (044-201-3538)
		담당자	사무관	현기창 (044-201-3947)
<공동>	한국철도공사 물류마케팅처	책임자	처 장	황국정 (042-615-4091)
		담당자	파트장	김현창 (042-615-4135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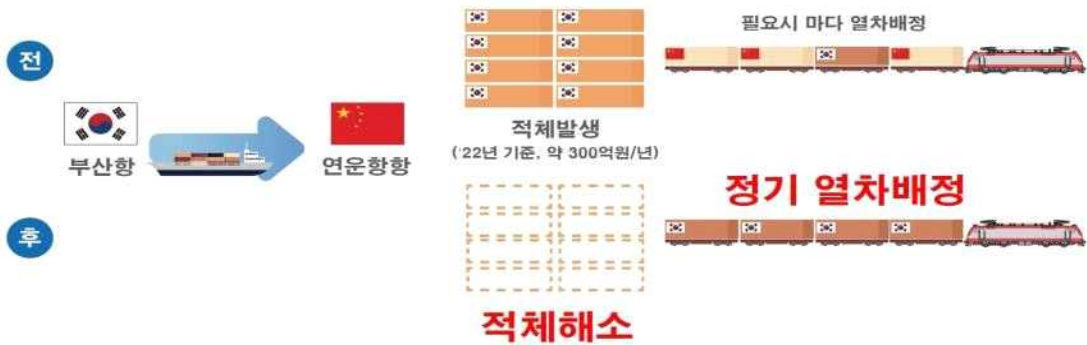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

OSJD(국제철도협력기구) 기반 국제복합운송 기대효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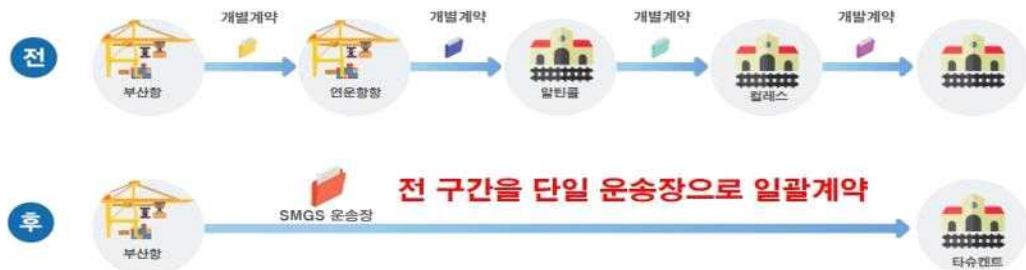
○ 항만 적체시에도 정기열차 운행으로 물류비용 절감 가능

정부에서 OSJD 회의를 통해 확보한 물동량에 대한 정기열차를 운행하여 항만과 국경역에서의 적체를 최소화 함으로써 한국기업의 물류비용(연간 300억원)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.



○ OSJD 표준 운송장 사용으로 업무절차 표준화, 간소화 가능

국내물류를 일괄계약 함으로써 단일운송장으로 한국 출발역에서 최종 도착역까지 운송 가능합니다.



○ 정부주도의 직통열차 운행으로 물류기업 운송비용 절감 가능

하나의 물류기업이 직통열차 물량(55대)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주도로 다수 물류기업의 물량을 모아 직통열차를 운영함으로써 물류기업의 운송비용 절감(약 10%) 가능합니다.

